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3. 갈래복합 06
남신의주~, 내 영혼의~, 수오재기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세 작품에서는 각각 어떤 문제들이 출제
되나요?

우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어.

- (1) 시상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묻는 문제
- (2) 시의 특징을 묻는 문제
- (3) 백석의 다른 작품 혹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힘든 현실을 드러내
고 있는 다른 작품과 연계하여 묻는 문제



(1)과 (2)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죠?

응~ 단순히 이 작품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과 표현
법이나 특징을 비교하여 묻는 문제가 출제될 거야.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힘든 처지에 있는 화자는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그
러나’ 이후부터는 **시상 전환**이 일어나.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삶의 의지를 가지게 된단다.

시의 특징도 알려줄게. **방언**과 **향토적 시어**를 사용하여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쉽표**를 많이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하고 있어.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나
요?

해당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 (1) 작품에 사용된 표현법과 심상, 어조를 묻는 문제
- (2) 작품의 주제와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
- (3) 시어의 상징을 묻는 문제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공감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어. 또한 ‘시퍼런 생기’에서는 화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성과 위협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추상적 개념인 영혼을 구체적 사물인 ‘복가시나무’에 비유하여 자신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단다. 이는 매우 중요하니 꼭 알아두렴~ 출제가 될 확률이 높아. 시에 나타난 의인법이나, 돈호법과 같은 표현법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해.

또한, ‘~리라’라는 의지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신념과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영혼의 순수성을 지켜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를 쓰고자 하는 것이 화자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단다.

긍정적 시어와 부정적 시어들도 각각 정리해 두어야 한단다.

상징과 여러 표현법들이 많이 사용된 시라서 꼼꼼히 공부해야겠구나.



세 개의 시 중에서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가 제일 어려웠는데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오재기」도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응. 그 작품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어

- (1) 글의 갈래에 대해 묻는 문제
- (2) ‘본질적인 나’의 의미와 작품을 쓰게 된 이유를 묻는 문제
- (3)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묻는 문제

이 작품은 어려운 건 없을 거야~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다른 갈래의 작품들과 엮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커.



네~ 그런데 ‘본질적인 나’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웠어요.

‘**본질적인 나**’는 땅이나 재산, 책과는 다르게 내가 꼭 지켜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필자는 자신이 ‘본질적인 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며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그리고 필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어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란다.

이 글에서 **열거, 예시, 대조 등 산문 특유의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것도 잊지 말고!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3. 갈래복합 06
남신의주~, 내 영혼의~, 수오재기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 어느 사이(화자가 처한 운명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 줌.)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화자의 처지)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해매이었다. (객지에서 해매는 화자의 처지)

바로 날도 저물어서, (화자에게 닥친 시련①)

바람(화자에게 닥친 시련②)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화자에게 닥친 시련③)는 점점 더해 오는데,]([]: 계절적 배경의 효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화자의 상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헌 샷(샷자리.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해당 작품은 토속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좀 더 사실적으로 이해하게 해 주며,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음.)을 깬,

한 방에 들어서 짚을 붙이었다*. >(< >: 산문적 진술. 쉼표를 사용해 호흡을 조절하며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산문적 진술, 쉼표 사용과 관련된 시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눅눅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자신의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

딜웅배기에 복덕불(향토적 시어)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찌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앓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무료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화자의 모습)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싸김질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슬프고 어리석은 삶을 반추함. 지난날을 성찰함.)

내 가슴이 꼭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눈물)이 핏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화자의 정서)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삶에 대한 절망감, 체념의 정서.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최고조에 이름.)

그러나(시상 전환. 심리 및 태도 변화 암시. 시상 전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화자의 태도와 '그러나' 이후의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시선 상승)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던정(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하강적 태도에서 상승적 태도로 심리가 전환함을 드러냄.)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초월적 존재, 운명, 숙명,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이 있음을 인식하는 운명론적 가치관이 드러남. 이로 인해 겸허하게 운명을 긍정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음. 화자의 운명론적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화자의 절망, 슬픔 등

의 감정이 가라앉고 내면이 안정됨.)

외로운 생각(화자의 정서)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새로운 각오와 삶에 대한 갈구) **무릎을 꿇어 보며**,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 성찰적 태도.)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숲**(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눈이 눈을 맞을, (화자와 갈매나무의 공통점 - 외로이 어두운 세상(시련)을 견디고 있음. '눈'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갈매나무의 특성) **갈매나무**(화자의 의지적 삶을 상징하는 객관적 상관물. 굳고 깨끗한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 '갈매나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남신의주의 유동에 사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라는 뜻으로, '방'은 자신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을 뜻함. 제목이 발신인의 주소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간체적 특징이 엿보임.)

*전을 붙이었다: 주인집에 세 들었다.

(나)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는**(화자의 외로운 처지)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화자의 분신, 영혼.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지표, 어떤 외부적 억압에도 결코 뺄리지 않는 절대적 가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화자의 내면 풍경을 형상화함.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를

무슨 무슨 주의(主義)의 옛장수들이 가워질(이념이 강조되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 **부정적 의미의 시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옛장수들의 가워질' 외에 '깃발과 플래카드들', '대장간의 낫', '툼니' 도 부정적 시어로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있는 것은 **흙집투성이 몸통뿐**. (부정적 상황 속에서 상처받은 화자의 모습)

허공(화자가 일시적으로나마 위로를 얻는 공간)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자유)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神木)의 향기**(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념의 강요가 없는 순수한 세상) 말으며 밤을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國道邊)**(부정적 현실 상황)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의인법)은 들었으리라(의지형 종결 어미)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념들의 난립이 주는 갈등 양상)이

내 **양상한 몸통**(부정적 상황 속에서 상처받은 화자의 모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화자에게 이념의 횡포가 가해지는 상황)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화자의 영혼이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상황)를.

봄기운에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시각적 심상. 화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성과 위협을 시각적으로 제시함. **시어의 상징과 표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를 띠고

툼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시각적 심상. 화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성과 위협을 시각적으로 제시함.)이 나니」([]:부정적 의미.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위협하는 존재들)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알몸으로 폭력에 항거함. 대결 의지) 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여

「**요사귀 달린 시(詩)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영혼의 순수성을 지켜냈을 때 얻을 결실①)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도치법. 영혼의 순수성을 지켜냈을 때 얻을 결실②)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저귀지 않아도 1 ([: 새 한 마리 지저귀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시를 쓰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열거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표현함.)

- 최승호,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

(다) **수오재(守吾齋)**(작품의 중심 소재. 글쓴이에게 성찰과 깨달음의 계기를 제공함.)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현상적 자아)**는 처음에 의심하며 말하기를,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품]**(본질적 자아)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수오재’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필자가 한 생각. 당시에는 ‘수오’의 의미를 알지 못했음.) / 하였다.

내가 장기(長鬚)로 **귀양**(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된 계기) 온 이후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품]**(본질적 자아)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 발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발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의 꽃나무·과실나무 등 여러 나무들을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 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聖賢)의 경전(經傳)이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런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천하 만물은 없애거나 가지고 달아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대체 가능한 것도 있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음. ‘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 1 ([: 천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 자문자답, 열거, 설의의 방식을 통해 깨달음의 과정을 드러냄.) 유독 이른바 **나[품]**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 하여 드나들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본질적 자아’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을 한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 본질적 자아의 특징 ① - 세상의 유혹에 쉽게 떠나 버림. 구체적인 예시를 나열하여 본질적 자아의 특징을 드러냄.) **그런데, 한 번 가면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본질적 자아의 특징 ② - 잃어버리면 쉽게 되찾을 수 없음.)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품] 같은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설의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함. 추상적인 ‘본질적 자아’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구체화하여 철저한 수양을 통해 ‘나’를 지켜야 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이다.(작가의 자기 성찰) 어렸을 때,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 들어간 것이 10년이였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烏帽]**에 **비단 도포**(벼슬길에 나섬. 대유법)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 길을 뛰어다녔는데**,(권력에 얽매어 본질적 자아를 잃고 생활했던 삶)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墳墓)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유배지)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품]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현상적 자아)**는 **나[품]**(본질적 자아)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海神)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苕川)에 있는데, 어찌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 자문자답의 자아 성찰 - 가정과 고향을 지키지 못하고 귀양 오게 된 자신을 질책함. ‘나’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음.)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했다.

끝끝내 나[품]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얼매인 곳** (벼슬길)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귀양지에 와서야 본질적 자아를 지킬 수 있게 됨.)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佐郎公)께서도 그의 **나[품]**(본질적 자아)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南海)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품]를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나’의 형도 귀양지에서 본질적 자아를 지킬 수 있게 됨.) [유독 나의 **큰형님**(본질적 ‘나’를 잃지 않은 인물)만이 그의 나[품]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守吾齋)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품]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작가가 귀양살이 중에 ‘수오재’라는 이름의 의미를 깨닫게 됨.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주관을 잃지 않는 것이며, 이는 세상의 유혹이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켜 내는 것을 의미함.) 큰형님께서서는 항상 말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현(太玄)*이라고 자(字)를 지어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본질적 자아)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써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 / 고 하시지만, 이것은 핑계 대는 말씀이다.]([]: (글쓰기가 태현을 지키려고 수오재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큰형님의 핑계라고 여기며. 큰형님이 자신의 몸, 즉 ‘나’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수오재의 이름을 붙였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 맹자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음.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드디어 내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守吾齋)의 기(記)로 삼는다.(글을 쓴 동기 - 해당 작품은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하는 ‘기(記)’의 양식을 따른 글임.)

- 정약용, 「수오재기」

*태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본질’을 뜻

(가)

핵심 정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고백적, 반성적, 의지적
- 주제: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 특징
 - 편지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근황을 드러냄.
 - 평안도 방언과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함.
 - 산문적 서술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방랑하는 화자가 삶에 대한 반성을 거쳐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의 제목은 화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나타낸 것으로, 객지에 홀로 떨어져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보여 준다. 화자는 홀로 방에 틀어박혀 자기 성찰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과정에서 북받치는 회한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정서의 흐름은 20행의 '그러나'를 기점으로 전환을 보인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은 삶을 움직이는 초월적 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한 화자의 감정은 점차 진정되고 외로움의 감정만이 남는다. 이윽고 화자가 떠올리는 '갈매나무'는 시련을 견디며 현실을 살아가는 고결한 삶의 모습을 상징하며, 새로운 삶의 지향을 보여 준다.

(나)

핵심 정리

- 갈래: 현대시
- 성격: 상징적, 현실 비판적
- 주제: 신념과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
- 특징
 -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 단정적인 종결 어미와 의지적인 목소리를 사용함.
 -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부정적 이념들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시적 화자가 폭력적 현실에 항거하고 참다운 자유와 사랑이 담긴 시를 쓰고자 하는 순수한 결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1~2연에서 시적 화자인 '북가시나무'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자유로운 하늘을 지향한다. 북가시나무는 난립한 이념에 의해 엇장수가 제멋대로 가위질하듯 온 몸통을 난도질당하여 가지도 잎도 없는 상처투성이의 고독한 존재가 되었다. 3연에서는 시적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북가시나무가 있는 곳은 수많은 차량에서 매연을 내뿜는 국도변으로,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 카드들(이념의 난립과 갈등)'에 의해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다. 북가시나무는 이러한 부정적 공간 속에서 자신의 순수한 영혼을 지켜가고자 한다. 4~5연에서 봄기운에 의해 만물이 소생되는 가운데 북가시나무도 새싹을 틔우지만, '낮'도 역시 생기를 띠고 자신을 위협한다. 이에 북가시나무는 알몸으로 항거한다. 온갖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행위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참다운 자유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담은 시(時)를 쓰고자 하는 결의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몸통으로부터 뺏어 나온 '앞사귀'와 '과일'을 자신의 순수한 영혼이 포함된 시(時)라고 했던 것이다.

(다)

핵심 정리

-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기
- 성격: 성찰적, 교훈적, 회고적, 경험적
- 주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
- 특징
 - 사건이나 경험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교훈을 제시하는 한문 문학 양식인 '기(記)'의 형식을 취함.
 - 의문을 제기하고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구성 방식을 취함.
 - 예시와 인용을 통해 글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임.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전통적인 한문 문학 양식인 '기(記)'로, 글쓴이의 큰형님이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사연을 적고, '나'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삶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나'를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로 구분한 후 간직하고 지켜야 할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미혹에 빠진 것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면서 본질적인 자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3. 갈래복합 06
남신의주~, 내 영혼의~, 수오재기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깎,
한 방에 들어서 전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찌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
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앉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짝 매어 울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텃정
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
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
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
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
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
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
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
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전을 붙이었다: 주인집에 세 들었다.

(나)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무슨 무슨 주의(主義)의 옛장수들이 가워질한 지
도 오래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
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神木)의 향기 맡으
며 밤을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國道邊)에 서 있는 내 영혼
의 북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무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봄기운에
대장간의 낮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어

앞사귀 달린 시(詩)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
기를 뿌리는 시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저귀지 않아도

- 최승호,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1. (가)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
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
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
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보니
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뜨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 <별 헤는 밤>

- ① 접속어를 활용하여 시상과 정서를 전환한다.
- ② 연과 행 배열을 통해 형식적 안정감을 드러낸다.
- ③ 다양한 의미를 가진 시어를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한다.
- ④ 호흡의 완급 조절을 통해 시의 후반부에 정서를 집약한다.
- ⑤ 토속적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과 상황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2. (가)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嶺)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만(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뱀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停止)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말에 었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① (가)와 <보기>는 모두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여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② (가)와 <보기>는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보기>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가)는 <보기>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보기>는 (가)와 달리 감탄사를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감정을 고조하고 있다.

3. 다음의 밑줄 친 시어 중, (가)의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 ②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듯하게 피웠나니 /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③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 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 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

을까나.

- ④ 나는 바람을 타고 /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 ⑤ 이승 아니든 저승에서라도 / 인연은 갈발을 건너는 바람 // 뭐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 오냐, 오냐, 오냐 /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4. 다음의 밑줄 친 시어 중, (가)의 ㉠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 서산에는 해진다고 / 지저귀니다.
- ②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는구나.
- ③ 우리는 머리말에 었디어 /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④ 나무도 바위도 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중략) 었그제 임을 잃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비교하리오.
- ⑤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5. (가)와 <보기 1>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1> —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캬캬 여우가 우는 산(山)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甘露)같이 단 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산(山) 너머는 평안도(平安道) 땅도 보인다는 이 산(山)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 <백화(白樺)*>

* 백화: 흰 자작나무

<보기 2>

- ㄱ. 연결 어미에 첨표를 넣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ㄴ.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여 토속적 분위기를 이끌어낸다.
- ㄷ. 음성 상징어의 사용을 통해 현장감과 생동감을 유발한다.
- ㄹ. 문장의 호흡이 길어 화자의 관념이 구체적으로 전달된다.
- ㅁ. 말하는 이의 현재 모습을 상징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드러나 있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6. 다음 <보기>의 글을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는 흔히 세상을 개혁함으로써 보다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 부정의 문학은 이 믿음 위에서 출발하여 마음에 드는 이상적인 세계를 세울 때까지 현실을 개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아를 부정함으로써 보다 크고 참다운 나에 이르려는 노력 역시 문학에 필요하다고 나는 느끼고 있다. 나의 변모는 곧 세계의 변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세계는 나를 내포하고 나는 세계를 내포하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관점에서 나는 자아와 현실을 부정하면서 시의 길을 가고자 한다. 이 길이 나에게서 이상적인 중도(中道)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최승호 시집, <「고슴도치 마을」의 후기>

- ① 1연의 '주의(主義)'와 이를 형상화한 1, 3연의 시어들을 통해 현실을 부정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
- ② 4연의 '시'는 크고 참다운 모습으로 거듭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화자가 내세우려는

가치라고 볼 수 있겠어.

- ③ '대장간의 낫'이나, '톱니들'로 표상되는 부정적 세력과 직접 맞닥뜨려 그들을 제거하려 하기보다 시를 쓰는 나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를 알겠어.
- ④ 가지도 없고 잎도 없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북가시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세계의 변모를 위해 자아를 부정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겠어.
- ⑤ 허공의 나라에서 밤을 쉬고 다시 국도변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나와 현실을 부정하는 '이상적인 중도'의 길이 현실 도피가 아님을 알겠어.

7. (나)에서 도출할 수 있는 문제의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부정적일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② 노동자와 농민 등 우리 사회의 서민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③ 특정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경도되기보다는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현실의 문제점들에 대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요구된다.
- 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계층 간의 갈등을 점검해 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

8. (나)의 각 연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	시구	의미
①	1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황폐해지고 상처 입은 화자의 순수성
②	2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

③	3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양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무끼는 소리	화자를 힘들게 하는 온갖 이념들과 그로 인한 갈등
④	4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현실의 위협과 폭력에 맞서 신념과 순수를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대결 의지
⑤	5	앞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시,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	화자가 신념과 순수를 담아 보여 주게 될 결실

9.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다.
- ④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구체적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오재(守吾齋)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며 말하기를,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吾]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 하였다.

내가 장기(長鬚)로 귀양 온 이후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吾]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 내 발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발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

가.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의 꽃나무·과실나무 등 여러 나무들을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 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聖賢)의 경전(經傳)이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A]

그런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吾]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둬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화가 겹쳐 주어도 떠나가며,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을 한 미인의 오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吾] 같은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이다. 어렸을 때,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 들어간 것이 10년이였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朝廷)에 나가 검은 사모(烏帽)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 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墳墓)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㉔ 이때에는 나[吾]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吾]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海神)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苕川)에 있는데, 어찌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했다. 끝끝내 나[吾]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얼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佐郎公)께서도 그의 나[퍌]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南海)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퍌]를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유독 나의 큰형님만이 그의 나[퍌]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守吾齋)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퍌]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께서 항상 말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현(太玄)*이라고 자(字)를 지어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써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 / 고 하시지만, 이것은 핑계 대는 말씀이다. 맹자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 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드디어 내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守吾齋)의 기(記)로 삼는다.

- 정약용, 「수오재기」

*태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본질’을 뜻

약 주인이 없다면 이 집은 그저 황폐한 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① ‘빗장과 자물쇠로 잠’그는 행위는 <보기>의 ‘학문의 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겠군.
- ② ‘여우와 도깨비에 홀려서’ 도착한 곳은 <보기>의 학문의 도를 터득한 마음 상태와 비슷한 것이겠군.
- ③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있는 ‘큰형님’은 <보기>의 ‘밝게 분변하고 독실히 행’하는 것과 유사한 모습이겠군.
- ④ 글쓰기가 ‘수오재’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보기>의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 상태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겠군.
- ⑤ 글쓰기가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던 것은 <보기>의 ‘문 앞에 물을 뿌리고 쓸며 집안일을 정돈’하는 행위가 일치하겠군.

11.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 <보기>는 『성학집요』에 담긴 맹자의 이야기와 관련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의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율곡 이이가 쓴 『성학집요』에는 구방심(求放心), 즉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성학집요』에 담긴 다음 내용을 읽고, ‘학문을 추구하는 자세’와 연관 지어 윗글을 이해해 봅시다.

학문의 도는 단연코 놓쳐 버린 마음을 구하는 데 있다고 했으니, 배우는 이는 모름지기 먼저 그 놓쳐 버린 마음을 수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풀어져 버려 널리 배우는 일에도 등한해지고 자세히 따져 묻는 일에도 등한해질 것이니, 어떻게 밝게 분변하고 독실히 행할 수 있겠는가? 대개 몸은 집과 같고, 마음은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있어야 문 앞에 물을 뿌리고 쓸며 집안일을 정돈할 수 있다. 만

<보기>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 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웃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생명의 서(書)·일장(一章)>

- ① 윗글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작가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윗글은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글쓴이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보기>는 각 연을 명사형으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보기>는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보기>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구조적 완결성을 드러내고 있다.

12. [A]의 설명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 ② 민화의 한 종류인 십장생도의 소재에는 장수(長壽)의 상징인 거북·소나무·산·해·사슴·학·돌·물·달 또는 구름·불로초 등이 있다.
- ③ 시계는 구조는 복잡하지만, 사람들은 시계를 이용하는 법은 아니다. 이처럼 세상도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 ④ 나의 아버지는 키가 크고 다소 마른 편이다. 크게 쌍꺼풀진 눈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있다. 아버지의 입술은 약간 도톰하며 손발이 유난히 크다.
- ⑤ 혁신의 확산이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 집단의 문화나 기술, 아이디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지역 또는 사회 집단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말한다.

13.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글쓴이가 처음 가졌던 생각의 변화가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

- ③ 글쓴이는 귀양 온 후 과거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 ④ 글쓴이는 과거 공부와 벼슬살이에 열중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
- ⑤ ‘나’는 귀양 와서도 벼슬길에 미련이 남아 여전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14. 윗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맹자의 말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이 옳음을 강조하고 있군.
- ② 글쓴이는 큰형님이 수오재란 이름을 지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군.
- ③ 글쓴이는 지켜야 할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수오재의 의미를 깨닫고 있군.
- ④ 글쓴이는 수오재의 의미를 깨달은 후 조정에 나아가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군.
- ⑤ 글쓴이는 귀양지에서 깨달은 수오재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반성하고 있군.

【15~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깬,
한 방에 들어서 전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웅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찌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앉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썩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던정
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
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
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
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
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
서

[A]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
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원을 붙이었다: 주인집에 세 들었다.

(나) 수오재(守吾齋)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며 말하기를,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
는 것으로는 나[吾]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
다.” / 하였다.

내가 장기(長鬚)로 귀양 온 이후 홀로 지내면서 정
밀하게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
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
나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
직 나[吾]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 발을 지고 도
망갈 자가 있는가. 발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
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의 꽃나무·과실나무 등 여러 나무들을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
을 훔쳐 없애 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聖賢)의 경전
(經傳)이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
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
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
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
런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
바 나[吾]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들투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
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
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화가 겹을 주
어도 떠나가며,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
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을 한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吾] 같은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이다. 어
렸을 때,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 들
어간 것이 10년이였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
에 나아가 검은 사모(烏帽)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
친 듯이 대낮에 큰 길을 뛰어들었는데, 이와 같이 12
년을 하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
을 넘어, 친척과 분묘(墳墓)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吾]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吾]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
비에게 홀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海神)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苕
川)에 있는데, 어찌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가?”

했다. 끝끝내 나[吾]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
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
치 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
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佐郎公)께서도
그의 나[吾]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南海)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품]를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유독 나의 큰형님만이 그의 나[품]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守吾齋)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품]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께서 항상 말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현(太玄)*이라고 자(字)를 지어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써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 / 고 하시지만, 이것은 핑계 대는 말씀이다. 맹자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 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드디어 내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守吾齋)의 기(記)로 삼는다.

- 정약용, 「수오재기」

*태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본질’을 뜻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 ① (가)와 달리 <보기>는 대화를 통해 시의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 ② (가)와 <보기>는 모두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보기>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해 주제 의식을 뚜렷하게 제시한다.
- ④ (가)와 <보기>는 모두 대조적인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보기>는 모두 특정 시어를 기점으로 하여 전체 시상이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뉜다.

15. (가)와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화 13도
영화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은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화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가)와 <보기> 모두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활용하여 시적 정서를 전환하고 있다.

② (가)와 <보기> 모두 관련이 없다.

③ (가)의 ‘누긋한’, ‘딜옹배기’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보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④ (가)는 쉼표를 통해 호흡을 조절하고, 후반부에 갈매나무를 통한 정서를 집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보기>에서는 호흡의 완급 조절이나 후반부의 정서 집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의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는
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턱정을 쳐다보는 것인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2. [정답] ①

(가)는 ‘갈매나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보기>는 풀벌레 소리를 통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보기>는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 ‘쌀랑쌀랑’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보기>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보기> 모두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와 <보기> 모두 감탄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3. [정답] ②

(가)의 ㉠은 화자가 겪는 시련을 의미한다. ㉡는 ‘꽃’이 ‘바람’을 이겨내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났다는 점에서 ‘바람’이 꽃이 겪는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삶을 의미한다.

③ 춘향이 그리워하는 몽룡을 의미한다.

④ 종소리가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⑤ 화자와 동생을 가로막으면서 동시에 연결해 주는 매개체를 의미한다.

4. [정답] ③

(가)에서 ‘갈매나무’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로, 화자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한다. ③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풀벌레 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역시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①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이나 객관적 상관물은 아니다.

② 시적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보여 주는 소재이나 객관적 상관물은 아니다.

④ 시적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소재이나 객관적 상관물은 아니다.

⑤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이나 객관적 상관물은 아니다.

5. [정답] ②

ㄴ. 윗글에서는 ‘삿, 딜옹배기’ 등의 소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보기 1>에서는 ‘산골집’, ‘메밀국수’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토속적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ㄷ. 윗글에서는 ‘쌀랑쌀랑’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보기 1>에서는 ‘캁캁’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ㄱ, ㄹ, ㅁ. (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1>과는 관련이 없다.

6. [정답] ④

<보기>는 부정한 현실을 개조하려는 노력보다 자아의 변모를 위해 나를 부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세계의 변모를 추구하는 시인의 이상적인 중도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1, 3연의 북가시나무가 보여주는 모습은 새롭게 변모하기 위해서 자아를 부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 현실에 의해 상처받고 있는 자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보기>의 ‘나는 자아와 현실을 부정하면서 시의 길을 가고자 한다.’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했을 때, 1연의 ‘주의(主義)’와 ‘가위질’, ‘깃발과 플래카드’

등의 시어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화자의 시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보기>의 '크고 참다운 나에 이르려는 노력 역시 문학에 필요하다고 나는 느끼고 있다. 나의 변모는 곧 세계의 변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했을 때, 4연의 '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화자가 내세우려는 크고 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의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아를 부정함으로써 보다 크고 참다운 나에 이르려는 노력 역시 문학에 필요하다고 나는 느끼고 있다. 나의 변모는 곧 세계의 변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했을 때, (나)의 화자도 '대장간의 낫'이나, '톱니들'로 표상되는 부정적 세력과 직접 맞닥뜨려 그들을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언젠가 시를 쓸 것이라며 '나'의 변모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는 '나는 자아와 현실을 부정하면서 시의 길을 가고자 한다.'며 이것이 '이상적인 중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의 관점을 적용한다면, (나)의 허공에서 다시 국도변으로 돌아오는 부분을 통해 현실 도피가 '이상적인 중도'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7. [정답] ①

(나)는 정치사상과 이념이 난립하고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된 현실을 비판적 관점으로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식은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부정적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태도 견지의 필요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② 서민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지니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④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나)에서 통해 계층 간의 갈등이나 구체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도출할 수 없다.

8. [정답] ②

(나)의 2연의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의 의미를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화자가 '허공'을 떠올린 것은 지금 처해있는 부정적 현실 상황에서 비롯된 상처 입은 자신의 순수한 내면(영혼) 때문이다. 바로 앞의 1연의 마지막 행을 보면 화자는 자신에 대해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즉, 억압과 혼란의 부정적 현실 속에서 화자는 자신의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있으며(3연),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자기 내면의 순수함과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저야 할 아무 의무도 없는 '허공'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①, ③, ④, ⑤ 시구의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9. [정답] ②

역설법은 모순 속에 진리를 담은 표현법을 말한다. 윗글에서 역설법은 확인할 수 없다.

① 부정적 시어인 '옛장수', '가위질', '국도변'과 긍정적 시어인 '신목의 향기', '시' 등 대조적 의미를 가진 시어들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시퍼런 생기', '초록과 금빛의 향기' 등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다.

④ 화자의 영혼을 상징하는 '북가시나무', 이념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대장간의 낫' 등 다양한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⑤ 영혼이라는 화자의 내면을 구체적 자연물인 '북가시나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10. [정답] ①

'빚장과 자물쇠로 잠'그는 것은 '나'를 잃지 않기 위해 굳게 지키는 것이다. <보기>에서 '학문의 도'는 '단연코 놓쳐 버린 마음을 구하는 데 있다'고 했으므로, '빚장과 자물쇠로 잠'그는 행위는 '학문의 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② '여우와 도깨비에 홀려서' 도착한 곳은 부정적인 곳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보기>의 학문의 도를 터득한 마음 상태는 긍정인 의미이므로 비슷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큰형님'이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글쓴이가 '수오재'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긍정적

인 상태인데, <보기>의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 상태는 부정적인 상태이다.

⑤ 글쓴이가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던 것은 부정적인 행위인데, <보기>의 ‘문 앞에 물을 뿌리고 쓸며 집안일을 정돈’하는 행위는 긍정적인 행위이다.

11. [정답] ①

윗글에서는 ‘나의 정원의 꽃나무·과실나무’, ‘성현의 경전’ 등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만물은 지킬 것이 없고 나를 지켜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윗글의 글쓴이는 귀양지에서 ‘수오재’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보기>의 1연에서는 ‘가자’로 3연에서는 ‘쫓이리라’로 마무리하고 있으며 2연만이 명사로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연을 명사형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의 ‘백일’과 ‘백골’에서 흰색의 색채 이미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와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보기>에서 1연은 화자의 상황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려는 생각이 나타나며, 2연에서는 아라비아 사막을 표현하고 있다. 3연에서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나’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연부터 3연까지의 시상 전개로 볼 때, 1연과 3연은 대응 구조로 볼 수 없다.

12. [정답] ②

[A]는 천하 만물 중 오직 지켜야 할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에 대한 사례를 들어 그것들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해당 선지 또한 장수의 상징에 대해 예시를 들어 열거하고 있다.

① 대조의 방법이 쓰였다.

③ 유추의 방법이 쓰였다.

④ 묘사의 방법이 쓰였다.

⑤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이 쓰였다.

13. [정답] ⑤

글쓴이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런 미련에서 벗어나 본래의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당 선지의 내용

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지만, ‘나’는 변화무쌍하고 달아나기 쉬우므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히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③ 글쓴이는 귀양 온 후 과거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깨달음을 얻었고,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④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4. [정답] ④

글쓴이는 수오재의 의미를 깨달으며, 조정에 나아갔던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자기를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오재의 의미를 깨달은 후 조정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① 글쓴이는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는 맹자의 말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이 옳음을 강조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초반에 큰형님이 지은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③ 글쓴이는 지켜야 할 대상은 천하 만물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며 수오재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⑤ 글쓴이는 장기에서 수오재의 의미를 깨닫고 ‘나’를 지키지 못한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15. [정답] ⑤

(가)는 ‘그러나’를 기점으로 화자의 태도가 절망적인 태도에서 희망적이고 의지적인 태도로 전환되고, <보기>도 ‘그러나’를 기점으로 굴종적인 태도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저항하는 태도로 전환된다.

① <보기>는 화자의 독백을 통해 내용이 제시되고 있을 뿐, 대화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보기>는 모두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하이야니’, <보기>는 ‘푸르른 사월’, ‘푸른 잎’ 등에서 색채 이미지가 활용되었지만, 대조적인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것은 아니다.